

## 3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국채매입효과 [DOW: 7,486.58pt (+ 1.23%)]	미국 연준이 경기회복을 위해 국채매입과 같은 공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낸 점이 투자심리를 북돋우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음. 지난주 나흘간 10% 급등한 부담으로 주초 숨고르기를 거쳤지만 전날 주요 지수들이 다시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뉴욕증시는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약세를 나타냈음. 그러나 오후 2시15분 미 연준이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결과 금리동결과 더불어 국채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뉴욕증시는 반등세로 급하게 돌아섰음.
美 연준 미국채 매입 전격결정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치고 제로 수준(0~0.25%)인 기준금리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음. 연준은 또 모기지 대출과 주택 시장을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 7,500억달러의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을 추가로 매입해 올해 총 매입 규모를 1조 2,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음. 연준은 특히 미국채 시장 안정을 도모해 시중의 자금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향후 6개월 동안 미국의 장기 국채를 3,000억달러 어치 매입하기로 결정했음.
국제유가, 美휘발유 재 고증가로 2%↓ [WTI \$48.14 (-\$1.02)]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미 연준의 미국채 매입 소식으로 장마감후 전자거래에선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13일 마감기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320만배럴 증가했다고 밝혔고, 에너지 정보 업체인 플랫폼의 전망치인 휘발유재고가 21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은행주 강세	대형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보너스 지급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AIG도 연일 급등세를 이어갔음. 다우 구성종목인 씨티그룹과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각각 20%가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음. 케네스 루이스 BoA 회장은 이날 "경제가 도움을 준다면 2009년말이나 2010년 초까지는 450억달러의 구제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음.
미 2월 소비자물가지수 0.4% 상승	미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4% 상승했음. 이는 0.1% 상승한 전월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0.3% 상승을 예측한 월가의 전망치도 웃도는 수치임.

제목	주요 내용
방통위, KT-KTF 합병 `일부 조건달아 승인	KT는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를 비롯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절차,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방통위에 제출·승인받으면 합병을 할 수 있게 됐다. KT는 이달 27일 합병 주주총회를 거쳐, 5월18일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 법인을 출범할 예정.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합병이 유무선 융합·통신방송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
환율 4일만에 반등 ...1,421.5원	기아차 BW 입찰에 참여했다가 실권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 수요가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관측. 기아차의 BW 입찰에는 외국인 자금을 포함해 8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렸지만 낙찰액은 4천억 원에 불과. 수입업체들이 결제용 달러화 매수에 적극 나서면서 환율 상승을 뒷받침. 외국인의 주식매수세와 주가 강세 등은 환율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됐다.
신규취업자 100만명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외환위기사 고용 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향후 국내 고용 시장은 각 부문별로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경기 침체로 건설, 조선 등 산업 전반에 한계 기업들이 나타나며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올 1분기 이후 본격화되며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 무엇보다 실업 사태가 분야별, 연령별로 전방위 확산되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한·EU FTA, 이르면 5 월경 가서명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FTA 8차협상이 협상단으로서는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어 통상장관회담에서 타결이 선언되면 협정문 검토작업을 거쳐 5월말경에는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
코카콜라, 中후이위안 인수 결국 무산	중국 상무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독점법 제 28조에 근거해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인수를 금지한다"고 발표. 상무부는 "코카콜라가 당국에 제출한 심의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업계 공정한 경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독점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리한 가격과 품질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됐다"고 설명.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